해양문화탐방 지도서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XI



한국해양재단 울산광역시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XI

한국해양재단 울산광역시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XI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를 펴내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우리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난 수만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풍습과 예술, 사상 등 고유의 해양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해양문화 자원은 해양강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해양재단은 이러한 해양문화를 계승·발전해 나갈 해양정신을 보유한 해양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2011년부터『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 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R.O.M, Regional Ocean culture education resource Map)』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해양문화 탐방의 교육IX - 안산 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해양문화 탐방의 교육X - 시흥 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와 함께 발간되는『해양문화 탐방의 교육XI - 울산 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는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울산지역의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체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울산 지역은 고래와 인연이 깊은 도시이자 울산항을 기반으로 발전한 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간절곶, 대왕암공원, 주전해변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소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천혜의 해양문화자원 보유지역입니다.『해양문화 탐방의 교육XI - 울산 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는 교사와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해설서)와 학생용 워크북, 탐방지도로 구성되어 있어 울산 지역의 해양문화와 해양자원을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의문을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학생용 워크북은 울산 지역을 동구·북구, 남구·울주군 등 2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10개의 탐방 지역을 엄선하여 학생들이 해양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해양에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울산 지역의 해양문화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애써 주신 편집자 및 자문위원, 그리고 현장감 있는 내용을 알차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울산광역시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강 무 현

Part 1 울산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01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방법 ····· 08

02 울산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방법 ····· 09

03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탐방 준비 및 주의할 점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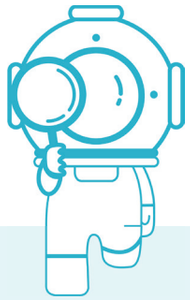
Part 2 울산 해양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특징

01 울산의 지리와 역사 ····· 16

02 울산의 해양생태와 문화 ····· 19

03 울산의 관광자원 ····· 22





Part 3 울산 바다와 해양문화 및 탐방 지도

1. 남구 · 울주군편

01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 항만 **울산항** ····· 28

02 울산 고래축제가 열리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 32

03 신라시대 처용설화가 깃든 **처용암** ····· 38

04 울산 앞바다로 돌아오길 **귀신고래 회유해면** ····· 42

05 선사인의 비밀을 풀 **성암동 패총**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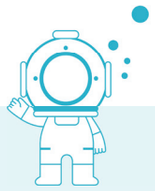
06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간절곶** ····· 46

07 울산 최초의 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 50

08 울산 앞바다에서 푸른빛 뽐내는 **목도 상록수림** ····· 54

09 울산의 작고 매력적인 해변 **솔개&나사해변** ····· 56

10 짜릿한 손맛을 느끼는 **송정낚시터** ····· 60



2. 동구 · 북구편

01 전설이 깃든 울산의 신비한 해양공원 **대왕암공원** 64

02 구슬픈 거문고 가락이 들리는 **슬도** 70

03 파도가 만든 몽돌의 소리 **주전몽돌해변** 74

04 반달 닮은 새하얀 백사장이 빛나는 **일산해수욕장** 78

05 바다를 더 친근하게 **남진항 ~ 상진항** 86

06 울산의 역사를 한눈에 **울산대교전망대** 86

07 해녀들의 삶이 녹아있는 **우가어촌체험마을** 90

08 바다로 곧게 뻗어 나간 **당사해양낚시공원** 92

09 영원을 약속하는 연인들의 항구 **정자항** 94

10 자연이 빚어낸 기묘한 예술품 **강동화암주상절리** 98

호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해양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해양재단이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Part 1

울산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01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방법

가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란

지구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에게 삶의 터전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다. 바다에는 지구 생명체의 약 80%가 서식하며, 지구 대기 속에 존재하는 산소의 50% 가량은 바다에서 제공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역시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시리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우리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해양재단이 개발한 기획물이다. 2011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1 - 여수, 순천, 보성, 남해, 광양, 고흥을 중심으로>, 2014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2 - 부산, 경남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2015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3 - 경북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울진, 울릉, 영덕, 포항, 경주)>, 2016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4 - 인천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 2017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5 - 강원 지역 해양 문화 체험 자원 지도>, 2018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6 - 충남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태안, 서산, 당진, 아산)>, 2019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7 - 충남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홍성, 보령, 서천)>,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8 - 화성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을 발간했으며, 이번 2020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9 - 안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10 - 시흥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11 -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지도>는 여덟 번째 기획물이다.

나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의 의미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우리 해양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하기 전에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를 통해 부족한 정보를 얻는다면 스스로 느끼고 공부하며 더욱 효과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02 울산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방법

가 울산 지역 해양문화의 가치

울산의 해안은 동해안의 일반적인 특징인 단순한 해안선 형태를 나타내지만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과 해안 퇴적 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간절곶이나 대왕암 일대는 해식애, 시스택(sea stack), 파식대 등 침식으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이고,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등은 퇴적되어 만들어진 모래해안이다. 암석해안이 만들어낸 수려한 기암괴석,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가 만든 경관과 고운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파도에 깎인 몽돌로 이루어진 자갈 해안까지 다채로운 해안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
또한 울산만을 중심으로 조성된 울산국가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관문 항만으로 개발된 울산항이 입지한 지역이다. 산업단지와 항만의 개발과정에서 수심이 완만한 해안이 간척되거나 인공 항만이 건설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해안 지형이 단순해지고 해안선이 직선화되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해안과 지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시설 역시 울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의 활용

울산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험 주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번 체험이 생태에 대한 체험인지, 혹은 역사 또는 생활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학생들이 체험한 것을 정리하기가 쉽다.

다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의 구성

울산의 해양문화 체험을 담은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11> 은 한 권의 교사용 지도서와 두 권의 학생용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워크북은 울산 지역을 두 곳으로 나눈 '남구·울주군', '동구·북구' 편으로 각각 구성 되었다.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용 워크북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해양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었다.

워크북

1) 학생용 워크북의 구성

① 학생용 워크북은 다양한 해양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변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핵심 키워드를 크게 부각시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한국해양재단이 개발한 캐릭터 '호기'를 활용해 학생들이 호기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도록 곳곳에 배치했다. 워크북이 한결 친근한 내용으로 다가가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장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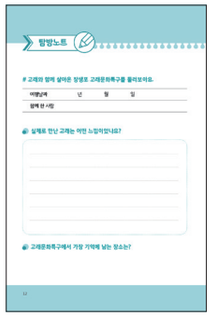
② 핵심 키워드에 따른 궁금한 내용을 3~4가지로 구분하고 사진과 일러스트를 적절히 혼합해 궁금증을 풀어간다.

③ '탐방 노트'는 각각의 지역에서 마주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새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등 그날의 체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④ 워크북 맨 뒷면에는 각 단원을 정리하는 퀴즈를 풀어보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서

2)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① 교사용 지도서는 울산의 해양문화를 개관하고, 각각의 지역으로 나누어 구성한 학생용 워크북의 네 가지 궁금증에 대한 풀이를 함께 실었다.
먼저, 각각의 권역 해양문화 개관은 한국형 해양적 소양(해양과학, 해양영토, 해양산업, 해양문화, 해양진로)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 워크북에 실린 궁금증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하였다.



② 교사용 지도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써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전문 용어나 특정 용어에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또 체험 활동과 관련해 꼭 알려 줘야 할 사항이나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고려해 다각적인 정보를 실었다.

③ 체험 활동을 떠나기 위한 정보도 꼼꼼하게 실었다. 각각의 지역적 특징과 함께 위치, 연락처, 인터넷 웹사이트를 소개했고, 대표 여행지를 실어 관광 안내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





03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활용 탐방 준비 및 주의할 점

해양문화를 알아보고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와 주의 사항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탐방에 나서는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준비물과 체험 활동 시 유의 사항, 안전 교육 등을 미리 확인해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한다.

가 탐방과 체험 활동에 따른 체크포인트

1. 사전 준비

① 현장을 답사한 뒤 소요 시간, 교통편, 숙박, 편의 시설 유무, 활동 시 주의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점검한다.

② 체험 활동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후송 수단 및 비상 연락 체계를 미리 갖춰 둔다.

③ 일기 예보를 사전에 확인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기상 악화 시 실내에서 대체할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④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명 이내 소수 인원이면 안내자 한 명, 20명 이내면 안내자 한 명과 보조자 한 명의 배치를 권장한다.

⑤ 탐방 활동은 4~6명으로 모둠을 조직해 학생 주도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⑥ 학생들의 사전 준비물은 워크북, 조사자료, 메모지, 필기구, 사진기, 휴대전화, 돋보기 등 탐방 활용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다.

⑦ 교사의 사전 준비 활동

- 탐방 장소 선택을 비롯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한다.
- 연초에 탐방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동료 교사와의 사전 협의 및 정보를 교환하고, 학교의 행정 및 경제적 승인과 관련 기관에 사전 협조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교통과 숙식 문제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약을 하고, 전날과 당일 중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한다.
- 사전에 지도할 사항 중 질서 준수와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개인 안전에 관련한 사항은 철저히 지도하고, 참가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상비약을 준비한다.

2. 진행 시 유의사항

① 학생들을 주목하게 한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② 사전에 정확한 일정표를 나눠 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시간을 관리하게 한다.

③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질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④ 학생들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체험의 진행 속도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⑤ 체험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주의한다.

⑥ 장소를 이동하거나 비교적 넓은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수시로 인원을 점검한다.

⑦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표정과 동작 등을 적절히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인다.

나 탐방과 체험 시 안전교육

1. 선박으로 이동할 때 안전 사항



① 배에 탑승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배의 구조와 출구의 위치를 알아둔다.

② 탑승 후 구명보트, 구명조끼, 비상벨,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구명조끼 착용법을 반드시 숙지한다.

④ 출입금지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소화기, 구명기구 등 배 안에 있는 장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⑥ 선박의 구조물은 단단한 철로 되어 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⑦ 선박 내 고립 또는 해상에서의 표류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를 준비해 둔다.

⑧ 배가 부두에 완전히 정박한 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내린다.

⑨ 선박 탑승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선박 이용을 취소한다.

⑩ 섬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선착장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 승선 전 반드시 확인한다.



2. 물놀이 체험할 때 안전 사항

① 수영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쪽부터 물을 적시고 나서 들어간다.
② 초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지도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되며, 수영 상급자라 해도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물놀이는 혼자서 하지 않으며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한다.
④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수상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한다.
⑤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 활동한다.
⑥ 물의 깊이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제한구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⑦ 기상 상황을 살펴 소나기가 내릴 때나 번개 또는 천둥이 칠 때, 안개가 심할 때는 물놀이를 중단한다.
⑧ 갑작스러운 이상 너울이나 파도가 높을 때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Part 2

울산 해양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특징



01 울산의 지리와 역사

가 울산의 주요 현황

1. 위치와 인구

울산은 한반도 동남단에 있는 광역시이다.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서쪽으로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맞닿아 있다. 울산의 전체 면적은 1,061.18㎢이며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2020년 9월 30일 기준 113만 9,368명이다. 1995년 울산시와 군이 통합되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이 시로 승격한 1962년 당시 울산의 인구는 약 21만 명이었으나, 1997년 101만 명이 넘으면서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4개 자치구와 울주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 이에 걸맞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2. 기후

울산의 연평균 기온은 14.1℃, 1월 평균 기온 -1~4℃, 7월 평균 기온 25.5℃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277.1㎜이다. 동쪽은 동해에 직접 면하여 난류의 영향을 받고, 동쪽을 제외한 삼면은 산지로 둘러싸여 겨울의 찬 북서 계절풍을 막아 대체로 온화한 기온을 유지한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4~9월에 80% 이상의 강수량이 집중된다. 풍향은 겨울철에는 대체로 북북서 방향이 주를 이루나, 나머지 계절에는 일정한 풍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봄철에는 바람이 많은 편이며, 여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가을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고, 겨울에는 눈이 적게 내린다. 또한 점토, 미사, 모래가 섞여있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가지고 있다.

3. 지형적 특성

울산은 지형적으로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이어지는 서부 산지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세가 낮아지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강, 회야강, 외황강은 이러한 산지로부터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하며 하천 유로를 중심으로 충적 평야를 이루고 있다. 동해와 이웃한 울산의 동쪽 해안은 남북 방향으로 해안선을 이루어 다양한 해안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동해안의 단조로운 형태와 유사하지만 해안으로 돌출한 두각지와 하천이 동해로 유입하는 하류부의 만입부가 교차로 분포한다. 이러한 해안 지역에는 해안 퇴적 지형인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등 모래 해안과 해안 침식 지형인 간절곶과 서생면의 신선암, 울기등대 등 두각지에 나타나는 해식애, 시스택(sea stack), 파식대 등의 암석 해안이 형성되어 있다. 울산의 해안 지형은 경관이 수려하고 암괴의 형상이 특이하고 동해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단지 부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조간대 부근의 해안이 간척되거나 인공 항만의 건설과 호안 시설 축조, 도로 가설 등으로 파괴되고 출입이 심한 해안선은 많은 구간에서 직선화되었다.

4. 교통망

울산은 고대부터 배로 철을 수출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항구를 개항했고, 신라시대에는 수도 경주를 잇는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통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철도와 도로, 항만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1921년 울산~경주~대구를 연결하는 조선중앙철도가 개통되었고 이후 부산, 서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1989년 울산~서울 간 새마을호가 운행을 시작했다. 2010년 KTX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현재 울산의 철도 노선은 경부고속선, 동해선, 온산선, 장생포선, 울산항선으로 이루어져 총 10개의 역이 개설되어 있다.

도로교통의 경우 1960년대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도로가 증대됐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확충되었다. 울산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3개 노선이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기점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종점으로 하여 동서를 잇는 울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의 일부분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을 연결하는 포항울산고속도로다.
이러한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에서 수많은 화물이 울산항으로 향하고, 울산항은 꾸준히 확장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발전하였다.

나 울산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의 울산

울산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땅이다. 산과 바다, 평야와 강이 적절히 어우러진 지역이기에 본격적인 정착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곳에서 발굴되는 수많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이 그 증거다.
삼한시대에 울산은 진한 12소국 지역에 속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많은 소국 중 하나였지만 청동 솥과 오리형 토기, 많은 양의 철제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소국이었다.

2.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울산

현재 울산의 행정구역 안에 형성된 작은 나라들은 1세기 이후 경주 사로국에 편입됐고, 3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신라 천 년 동안 울산은 새로운 해외문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항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교신앙과 국제물화 및 물품은 울산을 통해 수도 서라벌로 전해졌다.
고려가 건국될 당시, 울산지역의 핵심부를 장악한 호족, 박윤웅이 세력을 키워 고려 건국에 기여했다. 이 공을 인정받아 박윤웅은 울산 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울산 지역을 흥려부로 승격했고, 오늘날의 울산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때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조선시대의 울산

조선시대에 울산은 일본과의 교역이 허락된 해안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세종 때는 염포(鹽浦)를 개항하였다. 일본인들이 태화강 하구에 위치한 염포에 들어와 왜관을 설치하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울산은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군사적 방어가 중시되어 군영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고려 말 이후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울산에 여러 차례 성을 새로 쌓는 작업이 진행된 것도 울산 지역을 군사 방어의 요충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지역민들이 의병을 일으켜 왜와 싸웠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과 맞서 싸운 전투는 울산 도산성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전쟁 중 일본군은 기존의 서생포진성 근처에 서생포왜성을, 태화강 근처 학성산에는 울산왜성을 쌓았고 현재까지 남아있다. 두 왜성은 일본식 성곽 및 산성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4. 근현대의 울산

일제강점기 정리됐던 행정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62년 울산은 국가의 울산공업센터로 선정되어 개발되는 동시에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석유화학공장을 시작으로 자동차 공장, 조선소, 비철금속 공장 등 대규모 중화학 공장들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였다.
1997년에는 울산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었다는 점, 인근 지역의 위성도시가 아닌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광역시가 되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며 4개구(중구, 남구, 북구, 동구)와 1개군(울주군)으로 이루어져있다.

02 울산의 해양생태와 문화

가 해양 문화와 특산물

1. 고래의 바다



오래 전 동해는 수많은 고래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곳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동해를 고래 경, 바다 해를 써서 '경해'라고도 불렀다. 남쪽 동해안에 위치한 울산은 고래와 인연이 깊다. 신석기 시대부터 포경 문화가 성행했고, 그 흔적이 반구대암각화에 또렷이 남아있다. 이 암각화는 약 7,000년에서 3,500년 전 사이에 신석기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흔히 잡혔던 귀신고래와 어부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래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표현으로 그려져있다. 새끼를 업고 있는 어미고래나 물 위로 도약하는 모습 등 고래의 생태적 특징을 생동감있게 표현한 그림도 발견된다.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문헌에서 한반도 연안 곳곳에 고래가 출몰하였고 표착한 고래를 잡아 식량으로 쓰거나 왕에게 상납했다는 사료들이 발견된다. 조선은 국가적으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고래를 포획하기 쉽지 않았다.
근대에 들어와서 고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울산 장생포 지역은 포경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래고기를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포경사업은 점차 발전했다.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 고래의 개체수가 줄고, 고래 남획에 대한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부각하면서 상업포경은 1986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포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울산은 고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래잡이문화를 기억하고, 울산 바다로 찾아오는 고래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생포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하여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2. 해양 특산물, 돌미역

울산 북구 바다는 돌미역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안에 암반이 많아 해조류가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에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일조량이 많고, 물살이 거칠어 미역의 식감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다에서 자란 미역을 '쫄쫄이 미역'이라 부른다. 쫄쫄이 미역은 줄기가 길고, 잎과 줄기 폭이 좁고 두꺼운데다 질감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오래 끓여도 풀어지지 않고 쫄깃한 탄력이 유지되어 산모용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북구의 제전, 판지, 우가, 복성 등 어촌에서 생산되는 미역들은 모두 최상품으로 꼽힌다. 돌미역은 해녀들이 바위에서 자라는 미역을 직접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확이 이뤄진다. 매년 4~5월이면 어민들이 소형 작업선으로 항구와 미역바위를 오가며 쉴새 없이 미역을 따서 운반하고, 말리기 바쁘다. 다른 지역에서도 쫄쫄이 미역이 생산되지만 울산 돌미역이 가장 값비싸고 빠르게 팔린다. 돌미역을 채취하는 현역 해녀들의 고령화로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돌미역은 북구 마을 어민들의 중요한 해양자원이다.

3. 울산 해녀와 어촌체험마을

① 울산 해녀의 역사

흔히 해녀는 제주도의 어촌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울산에도 해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 해녀 역사는 제주 해녀들의 출장, 즉 원정 물질로 시작되었다. 울산은 해안선이 길고 예로부터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울산안내(1917)』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합의로 제주 해녀들로 하여금 우모(우뭇가사리)를 채취하게 했다고 한다. 우모는 당시 일본에서 양갱의 원료, 화약이나 소독약품의 재료 또는 건축용 자재로 이용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제주어장에서는 귀해진 우모가 울산에서 많이 채취되었기 때문이다. 원정 물질을 나온 해녀들은 고향인 제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결혼 등으로 정착하기도 했고, 이들에게 배우거나 그 딸들이 2대 해녀가 되면서 울산에 해녀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2018년 기준 울산광역시 해녀로 등록된 사람은 1,500여 명이고, 이 중 300명이 울산광역시 나잠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전복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에 능숙한 해녀를 전복해녀 혹은 큰해녀 · 1등해녀 등으로 부르며, 얕은 곳에서 성게와 미역 등을 채취하는 해녀를 개머구리 혹은 운단해녀 · 하빠리해녀 · 2등해녀 등으로 부른다. 제전마을의 제전마을박물관에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물질전시관에서 해녀들이 상용하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울산에서도 충분히 해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② 어촌체험마을



현재 울산에서 해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동구 주전마을이다. 2013년 4월 주전마을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했다. 제주 외에 유일한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주전 앞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이용한 해녀밥상을 먹어볼 수 있다. 주전마을의 특산물인 미역과 우뭇가사리로 미역떡, 우뭇가사리묵 등을 만들어보는 요리체험 등은 다른 어촌문화마을과의 차별점이다. 2018년에는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체험마을운영평가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2년 연속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선정한 설 연휴 가볼 만한 전국 휴양마을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체험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받았으며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등 시설도 완비하고 있다. 주전마을 외에 북구의 우가마을에서도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한다.

나 해양 관련 박물관

1. 울산해양박물관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해양박물관은 울산 최초의 사립 박물관으로 세계 희귀 산호와 패류들을 전시하고 있다. 1층 전시관에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패류들이 거북이나 상어 등의 박제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고, 2층 전시관에서는 500여 종의 수많은 산호를 만날 수 있다. 일부 패류들은 직접 만져보고, 소라껍질을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2. 장생포고래박물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위치한 장생포고래박물관은 포경 금지 이후 사라진 포경문화를 기억하고자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구성원인 고래의 생태적 특징과 가치, 보존방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귀신고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모형을 전시해두어 간접적으로나마 귀신고래와 만나는 공간을 마련했다.

03 울산의 관광자원

가 울산 12경

산업 도시로 각인된 울산의 이미지를 바꾸고, 해안과 영남 산맥, 도심을 흐르는 4개의 강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 2002년에 처음 울산 12경을 지정하였다. 이후 지역 관광시설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기존의 울산 12경 중 무룡산에서 본 울산광역시 야경과 울산체육공원, 작괘천, 파래소폭포 등 4곳을 빼고 울산대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외고산 옹기마을 등 4곳이 새로 지정되었다.

· 제1경은 태화강국가정원과 십리대숲이다. 2017년 전국 12대 생태 관광 지역으로 선정된 도심 공원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화초단지와 십리대숲, 철새공원, 태화강 전망대 등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장소다. 2019년 전국에서 2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 제2경은 대왕암 공원이다. 해송림과 해안의 기암절벽이 수려한 경치를 보여준다. 1905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되어 운영 중인 울기등대가 있는 곳이다. 대왕암까지 이어진 다리와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 제3경은 가지산 사계이다.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고 산세와 풍경이 사계절 마다 각기 다르게 아름답다. 봄에는 철쭉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힘차게 흐르는 계곡과 폭포를, 가을에는 곱게 물든 단풍을, 겨울에는 설경을 만날 수 있다.

· 제4경은 신불산 억새평원이다. 간월재에서 남쪽 영축산쪽으로 펼쳐진 억새길로, 신불산 정산에 오르면 나무 대신 억새만이 가득해 장관을 이룬다. 관광객을 위해 나무와 고무 재질의 계단 및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 제5경은 간절곶 일출이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새해 첫날 동해안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고 매년 해맞이 행사가 개최된다.

· 제6경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이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신석기인들이 새긴 동물과 고래잡이 등이 남아 있고, 천전리 각석에는 기하학 무늬와 명문 등 시대별 암각이 새겨져있다.

· 제7경은 강동해변 · 주전해변의 몽돌해변이다. 자갈이 파도에 의해 깎여 동그래진 몽돌이 해변을 메우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 제8경은 울산대공원이다. 도심에 위치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SK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조성했다. 수영장과 장미원, 나비식물원, 동물원 등 다양한 여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제9경은 울산대교다.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길이 1,800m의 현수교로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울산대교와 주변 공업단지 야경이 아름답다.

· 제10경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이다. 1986년 포경 금지 이후 사라져가던 장생포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기억하는 장소로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

· 제11경은 외고산 옹기마을이다. 1957년 허덕만이 외고산에 옹기굴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조성된 전국 최대의 옹기마을이다. 전통적인 옹기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옹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 제12경은 대운산 내원암계곡이다. 내원암은 원효대사가 마지막으로 수련한 곳으로 대운산 정상에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웅덩이와 폭포를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내원암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삼국시대 유적들도 위치하고 있다.

나 울산의 축제

1. 울산조선해양축제

2009년부터 매년 7월 말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3일간 울산조선해양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의 주요 산업인 조선과 해양 자원을 테마로 한 축제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음악 콘서트, 경연대회, 투어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 진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 울산고래축제

울산고래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장생포의 고래문화를 기억하고자 1995년부터 축제를 개최해왔다. 고래문화마을에서 주로 진행되고, 다채로운 길거리 공연과 암각화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고래 마켓과 먹거리들이 펼쳐진다.

3. 간절곶 · 대왕암 해맞이

울산은 해가 빨리 뜨는 지역으로 매년 1월 1일 간절곶과 대왕암공원 해맞이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 특히 간절곶은 새해 첫날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행사 때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왕암공원에서 진행하는 해맞이 역시 울산 12경 중 한 곳일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4. 처용문화제

처용문화제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하는 지역문화축제다. 1967년 울산공업축제로 시작해 1991년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막식과 거리퍼레이드, 처용 맞이 등의 주요 행사와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처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전시 행사 및 경연대회로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5. 울산쇠부리축제

울산쇠부리축제는 울산지역에서 이뤄졌던 제철작업을 뜻하는 쇠부리와 대장장이들이 토철에서 양질의 철을 정련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힘겨운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부른 노동요를 기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쇠부리 관련 행사를 비롯 관련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형 해양적 소양의 영역과 개념





01 해양과학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해양은 지구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므로, 인간은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 해양을 보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해수의 특성 #해수의 운동 #해저지형 #해양기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해양오염



02 해양영토

인간은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해양을 통해 문명 발달을 이룩해 왔으며, 해양은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 평화적으로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한국사 #세계사 #해양영토의 개념과 대응 #해양법과 국제기구



03 해양산업

해양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수산업 #조선 #해운 · 항만 #해양플랜드 #해양관광



04 해양문화

해양은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생활과 휴식, 즐거움을 제공한다.

#해양문화와 생활 #해양문화와 예술 #해양레포츠 #자연재해 #해양안전교육



05 해양진로

해양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쳐 갈 공간이다.

#해양진로교육 #해양직업





Part 3

울산 바다와

해양문화 및 탐방 지도

1. 남구 · 울주군편

01 울산항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 항만!"

#해양산업 #해운 · 항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울산항 052-228-5351(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홍보관)

가 울산항 역사

1. 선사시대~조선시대

울산광역시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울산항은 고대부터 항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삼한시대에는 달천지역에서 생산된 철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심항이었고,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해상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울산항을 통해 신라는 당과 일본의 사이를 연결해 양국의 무역품을 선적 및 하역하며 대외 무역항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신라 귀족들을 위한 수입품과 서라벌로 향하는 해상교역품 역시 울산항을 거쳤고, 서역의 상인들까지 울산항을 통해 경주로 출입할 정도로 그 규모와 위상이 대단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울산항은 잠시 주춤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종 때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부산포, 창원시 진해구의 내이포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방어진 부근의 염포를 왜인들의 왕래 및 거주지로 허가하면서 울산항은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맡게 되었다.

2. 울산항, 액체물류 처리 1위 항만

1960년대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에 국내 최대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원자재 및 제품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1963년 울산항이 개항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특화된 항만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울산항은 본항을 비롯해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구가 취급하는 물류와 선박이 다르다.

울산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항만시설로 개항 이래 지속적인 시설 구축과 급변하는 해상 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9년 기준 연간 약 2억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배후에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정유회사, 대규모 액체화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대 액체화물(29%)을 처리하는 항만이다. 액체화물 관리 설비와 능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액체화물이란?

선박에 적재되는 석유류를 비롯한 액화 가스, 화학제품, 동식물의 기름 등으로 가연성 물질의 경우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물질로 규정하여 운송 시 특별한 주의와 설비가 필요한 화물.

▼울산본항 액체화물탱크





▲울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울산신항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

3. 울산신항의 확장과 미래

국제화와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늘어나고 울산항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울산항을 확충하고 부두를 신설했다. 향후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울산시 남구 용연동과 울주군 온산읍 일원에 울산신항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북아 오일 · 가스사업 및 부두 건설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신항 개발을 통해 울산항은 동북아 오일 · 가스 허브항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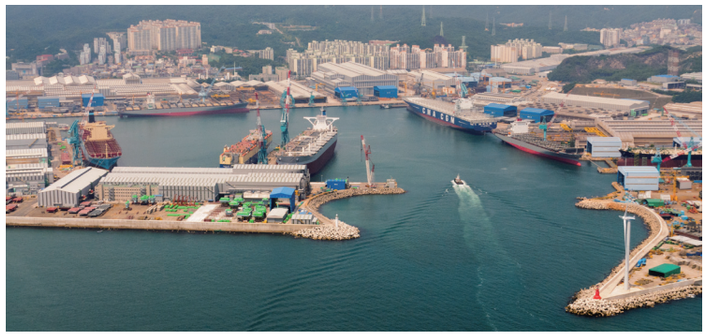
나 울산항 구조

1. 울산항의 중추적인 항만 울산본항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위치한 울산본항은 1963년 9월 개항장 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종합항만으로 석탄, 중장비, 자동차, 액체화학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부두 길이는 약 10,000m, 61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으며 3천 3백만 톤의 화물을 하역할 수 있다.

2. 동북아 오일 · 가스 허브의 선두 울산신항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된 울산신항은 오일허브와 배후단지,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는 북신항(황성동)지역과 광석, 잡화, 케미칼 등을 처리하는 9개 선석이 있는 남산항(온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선박 22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으며, 부두 길이는 5,300m, 약 2천 6백만톤의 화물을 하역할 수 있다.



▲조선공업 특화 항만, 미포항의 모습

3. 석유화학산업 중심 온산항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1973년부터 조성된 항만으로 외황강 하구 온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배후의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제련소의 원료 수입과 가공한 제품의 수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두길이는 약 5,000m, 32척의 배가 접안할 수 있고 연간 약 1천 7백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조선공업지원 항만 미포항

1970년대에 개발된 미포항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조선공업 지원항만이다. 현재는 현대중공업 안에 위치하여 선박 건조를 위한 철재를 하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울산항 홍보관

울산항만공사 본사 1층에 위치한 울산항 홍보관은 해운과 항만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울산항의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12층 전망대로 올라가면 울산항의 전경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조망할 수 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번지
개관시간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유일 휴무) / **문의** 052-228-5351



02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울산 고래 축제가 열리는"

#해양관광 #고래문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장생포고래박물관 052-256-6301~2(장생포고래문화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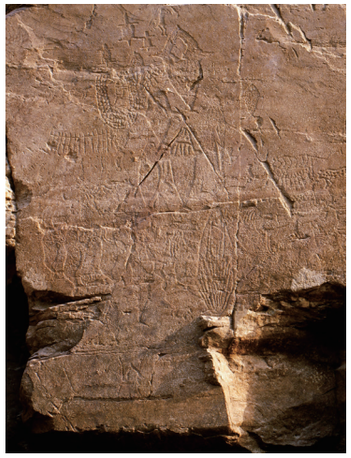
가 과거의 고래 산업

1. 울산 앞바다에 사는 고래들

고래는 바닷물 온도에 따라 새끼를 낳기위해 따뜻한 바다로 이동하고, 영양이 높은 먹이를 먹기위해 울산을 포함한 북쪽바다로 헤엄쳐 이동하는 회유동물이다. 울산 연안은 동해의 찬물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지역으로 심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기위해 작은 생물이 많이 모이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래들이 특히 자주 찾아온다. 귀신고래는 대표적인 연안 회유성 수염고래류로 울산 앞바다를



▲반구대 암각화 관람 동선 및 설명문



▲고래와 짐승들이 새겨진 부분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귀신고래는 사라졌지만 봄과 늦가을에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가 관찰된다. 과거에 비해 회유하는 고래 종류가 많이 줄었으나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종류를 살펴보면 귀신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향고래, 범고래, 돌고래 등이 활발히 울산 앞바다를 찾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포경의 역사, 반구대암각화

울주 대곡리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포경유적으로 선사시대의 해양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울산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변 절벽에 300여점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데, 고래를 잡는 모습을 새긴 장면은 4점이나 발견된다. 여러 사람이 배 위에서 밧줄이나 막대기를 이용해 고래사냥하는 모습도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반구대암각화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고래 두 마리가 겹쳐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귀신고래다. 귀신고래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습성을 보고 새긴 것으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이 귀신처럼 집요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래와 포경 그림뿐만 아니라 호랑이, 늑대 등의 육식동물과 돼지, 산양,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이 고루 새겨져 있고, 거북이와 물새 종류인 가마우지 그리고 그물과 같은 어로도구, 사람, 얼굴 등이 발견된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은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3. 현대의 포경

고래가 무분별하게 남획되자 1946년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당초 IWC의 목적은 고래 개체수의 적절한 관리였지만 고래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1986년부터 전면적으로 고래잡이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울산 장생포에서 포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해방 이후에도 고래잡이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근대식 고래잡이를 이어오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국제고래포경금지조약에 가입한 뒤 포경이 금지되었다.

나 고래 산업 변화

1. 장생포고래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장생포에 위치하고 있다. 고래 관련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 보존 및 전시하여 고래도시 울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고래 종류와 포경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장소다. 고래박물관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장생포 일대는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관람 동선은 1층, 3층, 2층으로 이어져 있다. 1층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의 원형을 전시장에 재현하여, 가까이에서 선사시대 암각화의 모습과 새겨져 있는 고래문양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볼 수 있는 고래들의 실제 골격이 전시되어 있다. 혹등고래, 범고래, 큰돌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등의 모형이나 골격을 관람할 수 있고, 울산 앞바다를 누볐던

▼귀신고래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전시 섹션



▼장생포와 고래에 대한 전시 섹션





▲참고래 수염



▲고래의 실제 골격 모형 / 해저터널 속으로 보이는 돌고래들

귀신고래의 생김새와 생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두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의 시작과 발전 과정, 쇠퇴에 이르기까지에 관한 전시도 함께 구성하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체험실에서는 고래찰흙, 고래 프로타주, 움직이는 종이고래 등의 활동을 상시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매월 '이달의 체험'을 한 가지씩 선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울산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20인 이내 단체 사전예약을 받아 고래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강의와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고래학교'도 운영한다.

2. 고래생태체험관

2009년 문을 연 고래생태체험관은 장생포고래박물관의 별관으로 돌고래를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돌고래 수족관이다. 1, 2층의 투명 아크릴 수족관 및 해저터널을 통해 돌고래 4마리가 유영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어류수족관은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담수어와 해수어가 관람객을 반긴다. 생물 외에도 2층에는 1950~1970년대 장생포 마을의 모습을 구현한 디오라마 전시관과 고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4D 영상관이 있다.

3. 고래문화마을

2015년 조성된 고래문화마을에서는 포경이 성행했던 옛 장생포 고래잡이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고래 해체장, 처리장, 착유장을 비롯해 장생포 주민들의 삶을 체감해볼 수 있는 현장이다. 이외에도 실물크기의 고래를 형상화하여 다양한 고래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색 공간인 '고래조각공원', 고래와 관련된 교감 및 공존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텔링 포토존, 반구대암각화와 고래잡이 벽화 등 선사시대 고래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공간인 '선사시대 고래마당'이 있다.

5D 입체영상관은 지상 2층의 건물이며, 1층 전체는 5D 영상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2층에는 카페테리아와 함께 장생포 앞바다와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5D 입체영상관에는 지름 13m, 높이 5m의 360도 대형 원형스크린과 360도 회전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실감나는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영상과 물, 바람, 스모그 효과 등으로 실제 고래가 헤엄치는 듯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고래를 해체하는 모습



▼고래문화마을 풍경





▲대기 중인 고래바다여행선

4.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바다여행선은 크루즈를 타고 울산 앞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를 탐사하는 관광상품이다. 고래 도시 울산을 알리고 고래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크루즈는 총 톤수 550톤, 길이 42.38m, 승선 정원 365명의 규모로 매년 정기운행을 하고 있다. 4~10월, 3시간 동안 고래탐사를 하는 프로그램과 4~10월, 11~2월 1시간 반 동안 연안투어를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웰리키즈랜드



해군 231 전진기지로 사용되던 건물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키즈랜드로 재탄생시켰다. 고래미끄럼틀, 볼풀탐험존, 범퍼카, 회전해적선 등 놀이시설과 VR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 각 놀이시설 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39
개관시간 평일 10~18시 (매주 월요일, 설 · 추석 당일 휴무, 주말 및 공유일 휴무)
문의 052-226-0090

#장생포 모노레일



장생포 모노레일을 타면 자상 3~5m에서 장생포 앞바다, 고래문화마을, 울산대교, 울산공단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고래박물관을 출발해 고래문화마을과 5D 입체영상관을 거쳐 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총 1.3km 순환형 노선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68-1
개관시간 주중 12시~17시, 주말 · 공휴일 9시~19시 (매주 월요일, 설 · 추석 당일 휴무)
문의 052-226-2621

03 처용암 "신라시대 처용설화가 깃든"

#해양영토 #한국사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68-1 052-229-6350

가 역사 속의 처용암

1. 삼국유사 속 처용설화와 처용암

처용암은 남구 황성동 처용리 앞바다에 위치한 바위이다. 이 작은 바위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설화가 깃들어 있어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 설화는『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인즉슨 신라 헌강왕이 개운포에서 유람하며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깜깜하게 끼어 길을 잃었다. 괴이하여 신하에게 물으니, 이는 동해 용의 조화로 좋은 일을 행해 풀어야 한다고

역사 속에서의 처용가

처용이 역신과 아내가 함께 동침한 모습을 보고 부른 노래, 처용가는 고려와 조선에 걸쳐 이어졌다. 음력 섣달 그믐날 밤, 궁중이나 민가에서 악귀를 쫓는 의식(나례)을 열 때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처용가무가 새겨진 비석

하자 왕은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지었더니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동해 용은 크게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그의 덕을 칭송했고, 아들 중 한 명인 '처용'은 신라 왕궁에 남아 왕을 보좌했다. 왕은 한 여인을 처용의 아내로 맞게 해주었는데 매우 아름다웠다. 역신이 그녀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해 밤에 처용의 집에서 몰래 들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사이, 처용은 밖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처용의 행동에 역신은 감동하였고 처용의 모습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여, 이후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악한 것을 피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해 용이 일곱 아들과 나타날 때 처용암 위로 올라왔다는 설과 아들들 중 '처용'만 처용암 위에서 떠올랐다는 설 때문에 후대에 '처용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처용문화제의 공식 캐릭터, 소년 처용



▼처용암 입구에 서있는 표지석





▲세죽옛터 표지석과 마을 내력 안내문

2. 세죽마을 옛터

세죽마을은 처용암이 보이는 바닷가에 위치했던 마을이다. 이곳은 조개무덤이 발굴되어 약 6,000여년 전부터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거주지역임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삼한시대를 거쳐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처용암 설화를 비롯, 헌강왕이 연회를 열었던 장소였다. 각종 어업과 배를 통한 교통이 발달하면서 마을은 점점 부유해졌으나 1970년대 마을 주변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섰고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현재는 마을 터만 남아있다.

나 처용설화를 활용한 문화산업

1. 처용문화제

1967년부터 이어온 처용문화제는 옛 울산공업축제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에 축제의 명칭을 '처용문화제'로 개칭하면서 처용설화를 주제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이 어우러졌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발전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울산의 시민축제로 매년 10월경 3일간 진행된다.

처용문화 혹은 콘텐츠를 활용한 무대 공연을 비롯해 5개 구·군에 처용마당이 마련되고 세계 탈 전시, 시민문화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플리마켓, 동아리 경연대회, 울산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처용문화제의 발전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체험활동과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2. 처용공원

처용공원은 남구 황성동 세죽마을 앞바다 근처에 위치한다. 처용암이 잘 보이는 바닷가를 따라 자리잡은 공원으로 처용암과 처용설화를 주제로 조성되었다. 잠시 쉬면서 처용암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정자와, 2001년 제작된 처용문화제 공식 캐릭터로 꾸며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해변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걸으며 처용암 설화를 되새겨보고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만한 곳이다.

▼처용공원 산책로 전경



함께 여행해보세요!

#울주 천전리 각석

울주 천전리 각석은 1979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다. 청동기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문양과 동심원, 나선형, 마름모 등 추상문양을 비롯해 신라시대 초에 새겨진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보 제 1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문의 052-229-7637

04 귀신고래 회유해면 "울산 앞바다로 돌아오길"

#해양과학 #생물다양성



울산광역시 동해안 일원

가 울산의 귀신고래

1. 귀신고래의 특징

귀신고래는 윗턱에 긴 수염이 달려있어서 물을 빨아들이고 난 후 수염으로 거른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수염고래아목에 속하는 고래다. 주로 바닥에서 먹이를 먹는 습성이 있으며, 입으로 해저의 펄을 휘저어 그 위에 떠오르는 옆새우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히 성장하면 수컷은 13m, 암컷은 14m까지 성장하며 암수 모두 8세 전후에 성체가 되고 최고 70년까지 산다. 몸은 방추형으로 회색에서 짙은 회색을 띄는데, 성장하면서 머리를 중심으로 피부에 다수의 따개비류가 기생하여 특이한 피부가 된다.

2. 개체수 현황

울산 연안에서 발견되던 한국 귀신고래는 1964년 5마리를 포획한 후 과도한 남획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귀신고래는 1993년 사할린 연안에서 다시 관찰되었고, 그로부터 꾸준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13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고래보호정책

1. 회유해면

고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다를 회유이동하는 동물이다. 귀신고래는 혹등고래와 같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고래로 알려져 있고, 먼 바다를 통해 회유하는 다른 고래류와 달리 연안지방을 따라 이동한다. 여름철에는 고위도의 풍성한 먹이장에서 먹이를 섭취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저위도 지방으로 헤엄쳐와 월동과 번식을 하는데,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은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 속한다.

2. 천연기념물 지정

귀신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1962년 12월 7일, 울산 부근의 동해안 연안 인근이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앞바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유해면에 속한다. 장생포고래박물관 및 고래생태체험관과 가까운 해안가에 회유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근처 해변, 귀신고래 회유해면 지역



05 성암동 패총 "선사인의 비밀을 풀"

#해양영토 #한국사 #고고학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451-4 052-229-6350(울산종합관광안내소)

가 해양과 고고학

1. 패총 생성과정

농경이 이루어지기 전, 혹은 농업기술의 초기 단계에 사람들은 수렵이나 어로 같은 채집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다. 선사인들은 조개류를 식량으로 소비한 뒤 남은 조개껍질과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부서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석기나 토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쌓아두었고, 계속 축적되면서 무덤과 같은 형상의 패총이 생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생성된 패총이 주로 발견되고,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두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조개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하기 때문에 조개더미가 밀집하여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성암동 패총 역시 개운포 성지의 남쪽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다.

2. 출토 유물

조개껍질의 석회질 성분은 분해되기 쉬운 동·식물성 음식물 쓰레기나 자연 유물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조개무덤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다. 성암동 패총에서는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과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생활유물인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돌도끼, 그물추가 있고 식생활을 보여주는 생물의 뼈와 껍질(돌고래뼈, 피뿔고동, 참굴, 떡조개 등)이 발견되었다.

3.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패총은 고고학 연구에 있어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생활유적이다. 성암동 패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울산 남구 황성동 세죽 패총과 함께 울산지역의 신석기시대 생활모습을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유적지다. 패총의 위치와 출토 유물을 볼 때 선사인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개더미 주변에는 패총을 만든 사람들의 공공장소인 광장이나 집터가 발견되기 때문에 성암동 패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선사인들의 문화와 생활모습을 더욱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암동 패총에서 발굴된 융기문토기



▼성암동 패총에서 발굴된 석기류



06 간절곶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해양관광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052-204-1000(울주군청)

가 간절곶 지형적 특징

1. 곶 생성원인

곶은 육지에서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뾰족한 모양의 땅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은 반도와 같지만 곶은 반도보다 규모가 작다. 곶이 생성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첫째, 육지가 어떠한 지각변동에 의해 내려앉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원래 산줄기였던 곳이 바다에 잠기면서 형성된다. 둘째, 해안지형에서 파도로 인한 침식으로 절벽이 형성될 때 해안지역 중 강하고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부분이 침



▲간절곶에서 맞이하는 일출

식되지 않거나, 또는 지형적인 원인으로 파도의 힘이 약한 부분이 침식의 영향을 덜 받아 바다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해안을 따라 모래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사취가 발달하면 그 사취 자체가 곶을 형성하기도 한다.

2. 간절곶의 특징

'간절곶'은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높은 곳의 감이나 과일을 따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 간짓대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릉의 정동진, 포항의 호미곶과 함께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간절곶은 새해 아침에 정동진보다 5분 먼저, 호미곶보다 1분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탁 트여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고, 간절곶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다. 매년 1월 1일에는 간절곶에서 새해를 맞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3. 일출시각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출시간은 위도, 경도 및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절에 따라 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부의 경우 여름철로 갈수록 낮의 길이는 길어지고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반면, 겨울철로 갈수록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일출시각은 위도, 경도, 고도, 계절의 영향이 합쳐져서 결정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간절곶의 해 뜨는 시각은 1년 내내 가장 빠른 것이 아니다. 여름철에는 포항 호미곶에서 해가 조금 먼저 뜬다.

나 간절곶의 문화자원

1. 간절곶등대

간절곶은 원래 일제강점기부터 울산을 비롯한 동해 남부 연안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등대를 세워 바닷길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곳이다. 1920년 간절곶등대가 건립되었고 3월 26일 최초 점등하여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무신호기로 소리를 내어 등대의 위치를 알려준다. 건립 후 2001년에 등대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 건축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등대 옆에는 20여 년간 동해를 밝혀온 기존의 등탑을 철거하면서 상단부를 복원하고 원래의 등롱과 등명기를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옛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하여 간절곶 등대의 역사로 간직하고 있다. 현재 등대와 비교해보면서 관람하기 좋다.

▼복원한 (구)간절곶등대의 상단 부분 / 간절곶등대의 현재 모습







▲소망우체통



▲푸른 잔디와 나무가 펼쳐진 간절곶

2. 소망우체통

간절곶에 서있는 '소망우체통'은 2006년 세워진 이후로 포토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높이가 5m에 달하는 대형 우체통으로 푸른 바다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 관광객들이 줄을 서 사진을 남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망우체통은 실제로 편지를 써서 넣으면 일반 우편과 동일하게 배달된다.

우체통에 모인 편지들은 울산온양우체국에서 평일 11시에 일괄 수거하여 배송하는데, 금요일의 경우 수거시간 이후에 넣었다면 배달 시간이 다소 지연된다. 규격 외 우편물은 추가요금이 있고 요금이 부족하면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보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간절곶등대 전시관

간절곶이 일출명소로 유명해지고 등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광객을 위해 전망대와 등대에 사용했던 장비, 등대 사진, 등대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수집하여 마련한 등대 홍보관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개관시간 매일 09~18시(4~9월) / 매일 09~17시(10~3월)
문의 052-239-6313



07 진하해수욕장 "울산 최초의 해수욕장"

#해양문화 #해양레포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토지구 획정리지구내 9B

가 울산 최초 해수욕장

1. 진하해수욕장

1974년 울산에서 첫 번째로 개장한 진하해수욕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운 백사장이 2km 펼쳐져 있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이다. 남해의 특성상 해수가 따뜻하고 파도가 잔잔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해수욕장으로 적합하다. 진하해수욕장은 매년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장하는데, 샤워장과 튜브 및 파라솔 등이 비치되어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에 편하다.

진하해수욕장은 일산해수욕장과 함께 울산의 양대 해수욕장으로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과 서핑족들로 붐비고, 사계절 내내 사진작가와 바다 낚시꾼들도 많이 찾는다.

2. 명선도

진하해수욕장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해수욕장 앞 바다의 '명선도' 때문이다. 모래사장에서 약 100m 이내에 가까이 위치한 무인도로 바닷물이 빠지면 수면 아래에 있던 모랫바닥이 드러나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작은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섬 내부에는 약 50년생의 곰솔군락과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고, 일출 무렵의 명선도와 해수욕장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촬영 장소이다. 모세의 작은 기적처럼 보이는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는 진하와 강양을 연결하는 명선교 위에 오르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3. 밀물과 썰물

진하해수욕장의 바닷길은 밀물과 썰물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썰물과 밀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의한 중력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이 상호작용하는 원리로 발생한다. 진하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편에 속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해수욕장과 명선도 사이에 모래가 자연스럽게 쌓였다. 이 때 퇴적된 모래가 썰물 때 드러나게 되면서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사이에 바닷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해수욕장과 연결된 명선도



나 해양레포츠 활동

1. 울주해양 레포츠센터

다채로운 수상 레포츠 활동과 바닷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울주해양레포츠센터는 해안가와 가까운 울주 진하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해양관광시설이다. 진하해수욕장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곳에 센터와 캠핑장이 위치해 있어 해양레포츠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기구는 무동력 장비인 카누, 카약, SUP, 딩기요트, 세일링 장비인 윈드서핑, 동력장비인 모터보트, 토우잉, 제트스키가 있다. 해양레포츠와 함께 생존수영과 응급처치를 배우는 수상안전교육, 가상현실 퇴선교육을 받는 VR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야영장의 경우 4X4 싸이트 20면, 4X6 싸이트 30면, 오토싸이트 16면으로 총 66 싸이트와 야외광장, 샤워실, 화장실, 세척장 등 부대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캠핑하기 편리하다.

2.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윈드서핑은 파도타기 판 위에 요트의 돛을 부착하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 파도 위를 타는 스포츠다. 경기 방법에는 해상에 부표를 띄우고 정해진 지점을 돌아오는 코스 레이스, 바다 한가운데서 두 개의 지점을 여러 번 돌아 속도를 겨루는 슬라럼, 일정한 시간 내에 공중 회전과 같은 묘기를 하며 파도타기를 하는 웨이브 퍼포먼스 등이 있다.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2005년 첫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했고, 이후 2007년부터 국제프로서핑선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대회로 승격해 현재까지 매년 국제서핑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울주해양레포츠센터 본관 건물



▼텐트 설치 구역과 나무 테이블



윈드서핑의 시작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지방에서 호일 슈바이처와 짐 드레이크가 처음 윈드서핑을 고안했다. 서핑과 요트의 장점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고,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큰 인기를 끌었다.



▲PWA 세계 윈드서핑대회 경기 장면

윈드서핑을 즐기는데 필요한 자연환경은 적절한 바람이 부는 바다와 해변인데, 진하해수욕장은 바람이 좋아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겁게 대회를 즐기고 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개폐막식 공연, 해상 시범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와 해설을 통해 일반 관람객들도 충분히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통해 울산은 해양관광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명선교

진하해수욕장의 또 하나의 볼거리인 명선교는 서생면 진하리와 온산읍 강양리를 연결하는 하얀색 다리이다.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마주할 수 있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이 다리를 비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명선교



08 목도 상록수림 "울산 앞바다에서 푸른빛 뽐내는"

#해양과학 #해양생물다양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가 목도의 생태적 가치

1. 목도 이름 유래

울산신항, 온산항, 온산국가산업단지, 학남산업단지 등 공장과 항구로 둘러싸인 울주 앞바다에 위치한 목도는 해안과 300m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다.

과거 신라시대에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 목도에 대나무를 심어 죽도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섬에 동백나무가 많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이 섬을 동백도라 하였고,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동백꽃이 섬에 꽉 차 있어 동백도라 불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섬의 형태가 사람 혹은 동물의 눈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한자 눈 목(目)자를 써서 '목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동백나무



▲해송



▲사철나무

2. 상록수림과 주요 구성 식물

상록수는 잎이 넓은 상록활엽수와 좁은 상록침엽수로 나뉘는데 주로 따뜻한 남쪽에는 상록활엽수가, 추운 북쪽에는 상록침엽수가 집중적으로 자란다. 붉가시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및 굴거리 등이 상록활엽수에 속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남쪽에서 주로 자라지만,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그 수와 종류가 많아진다.

3. 동해의 유일한 상록수림

목도는 동해안 쪽에서 유일하게 상록수 군락이 자생하고 있는 섬이다. 섬이 드문 동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록수들이 자라는 목도는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천연기념물 및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관리 및 학술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목도에 출입할 수 있다.

섬의 총 면적은 약 1만 4,800㎡로 대부분 상록수림으로 덮여 있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차나무, 팽나무, 곰솔, 송악 등 7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는데, 주로 상록활엽수가 많아 난대성 자생 식물의 보고이다.

4. 어부림으로서의 역할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한 숲은 나무들로 인해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이 생겨 물고기들이 모여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숲을 어부림이라고 하는데, 어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어민들은 그 중요성을 알고 어부림을 보호했다. 목도 역시 물고기 떼를 해안으로 유인하는 천연 어부림의 구실을 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09 솔개&나사해변 "울산의 작고 매력적인 해변"

#해양레포츠 #해안산책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솔개해변/나사해변

가 울산의 숨겨진 명소

1. 모래사장

모래사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높은 산의 화강암 덩어리에서 깨져 나온 큰 돌덩어리가 강을 타고 굴러 내려오면서 부딪치고 갈라져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깎인 수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해변가에 모여 모래사장을 만든다. 동해안에 모래해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모래가 해안까지 쉽게 이동되고, 조석의 영향이 적어 모래가 해안에 쉽게 정착하기 때문이다.

2. 솔개해변 특징

울산은 해안가를 따라 공업단지와 항만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해변이 크거나 많이 형성되진 않았지만, 소담한 해수욕장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솔개해변과 나사해변이 대표적인 울산의 작은 해수욕장으로 한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솔개해변은 넓은 면적에 고운 모래가 깔려있고, 파도가 잔잔하다. 모래가 부드럽고 바닷물에 잘 뭉쳐져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거나 모래찜질하기 적당하다. 해수욕장 뒷편에 솔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로를 따라 솔개해변의 경치를 감상하기 좋다.

3. 나사해변 특징

솔개해변에서 남쪽을 향해 자동차로 10분 정도 내려오면 나사해변을 만날 수 있다. 나사리에 있는 해변이라 하여 나사해변이라 자연스럽게 불리게 되었고, 해변의 길이는 약 1km 정도, 모래사장의 폭은 30m 정도로 솔개해변과 비슷한 작은 해수욕장이다.
해변 양끝의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 왼편으로는 빨간 등대가, 오른편으로는 하얀 등대가 서있어 아기자기한 해변의 모습을 그려낸다. 나사해변 역시 파도가 거의 없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사해변 빨간 등대▶



나사해변 하얀 등대▶



▲방파제 벽에 그려진 벽화





▲나사해변 포토존 조형물 / 나무데크로 이어진 솔개해변 산책로

4. 해안도로(산책로)

울산의 해안도로를 달리면 탁 트인 푸른 바다와 파도가 깎아 만든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난다.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안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안도로가 개발되었다. 울산이 속한 동해안의 해안도로 혹은 산책로가 바로 해파랑길이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의 해변길으로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750km의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울산의 해파랑길은 진하해변부터 정자항까지 5, 6, 7, 8, 9코스 총 5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짧게는 12km, 길게는 19km까지의 거리이며 쉬운 구간, 보통 구간, 어려운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걷고자 하는 장소와 난이도를 고려해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트래킹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를 따라 안내하는 산책로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다.

▼해파랑길 표식





▲넓게 펼쳐진 해변이 보이는 솔개공원

5. 해안 디자인 개선사업

우리나라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와 해변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리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해안 디자인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울산 역시 바다와 인접해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해안가를 따라 해양경관을 조성하였다. 울주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서생면 진하리, 서생리, 대송리까지 4.5km 구간에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해안산책로, 가로등 및 야간 경관개선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해안길이 간절곶 소망길이다. 진하해변의 명선교부터 신암마을까지 총 10km 구간으로 명선교에서 진하해변 백사장 구간, 간절곶 구간까지 데크를 설치하여 길을 만들어 두어 편하게 걷기 좋은 장소로 탈바꿈했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솔개공원

솔개공원은 솔개해변 옆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광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바다의 풍경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다. 시야가 활짝 트여있는 바다를 가깝게 조망할 수 있고, 멀리 있는 공단의 모습도 보인다. 공원 내에 주차장과 매점이 마련되어 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416 솔개공원



10 송정낚시터 "짜릿한 손맛을 느끼는"

#해양레포츠 #낚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39-8 송정바다낚시터

가 울산의 바다어종

1. 송정낚시터 바다어종

송정낚시터는 잡은 고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취식이 가능한 바다어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돔, 우럭, 능성어 등 횟집에서 볼 수 있는 고급어종을 낚시로 직접 잡아볼 수 있다.

참돔은 우리나라 전 연해에 분포하고 있는 어종으로 일반적으로 분홍색에 녹색의 광택을 띠고 있으며 청록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살색이 희고 육질이 연하여 횟감으로 인기 있다.

우럭은 암회갈색 빛깔을 가지고 있고 서너줄의 흐릿한 흑갈색 가로띠도 보인다. 참돔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 연해에서 서식하며, 횟감으로 쓰이고 특히 매운탕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능성어는 회살색 바탕에 7개의 진한 갈색 무늬가 있는 어류로 주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찰지고 달큼한 맛으로 유명하나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급어종에 속한다. 주로 회로 먹지만 매운탕이나 지리,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먹는다.

송정낚시터는 어종을 따로 양식하여 하루에 2번 낚시를 즐기는 가두리에 방류하고 있어 낚시꾼들이 풍부한 어장 속에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2. 낚시터 이용방법

송정낚시터는 바다에 물고기를 가두어 놓고 낚시를 즐기는 곳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데,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운영하니 밤낚시를 하고 싶다면 따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배를 타고 가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면 된다. 1인 1낚시대만 가능하며 오징어, 각크릴, 청갯지렁이 같은 지정된 미끼만 써야 한다.

낚시채비도 구멍찌 또는 막대찌, 0.5~0.8호 외바늘만 사용할 수 있다. 잡은 물고기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무제한 방과 참돔 2마리, 우럭 3마리 내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방으로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장소와 가격을 선택하면 된다.

▼낚시터 내부 모습





▲방어



능성어▶

3. 낚시체험

낚시는 해양문화에서 오래된 어로활동이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해양레저스포츠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워 고기를 낚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잡으려는 물고기의 종류나 환경에 따라 낚시 용구 및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먼저 바늘에 미끼를 끼워 바다로 낚시대를 내리고 기다린다. 낚시줄에 연결된 찌가 흔들리거나 낚시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 재빠르게 낚시대를 위로 채면 된다. 고기가 당기는 느낌, 그 손맛을 경험하면 재미를 느끼게 된다.

아이들 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 초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송정낚시터에서 낚시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방이 마련되어 있고 낚시대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경험해보기 편하다. 가두리 낚시터의 발판과 난간이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어 아이들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나 항상 유의해서 지켜보아야 한다.



Part 3

울산 바다와

해양문화 및 탐방 지도

2. 동구 · 북구 편

01 대왕암공원 "전설이 깃든, 신비한 해양공원"

#해양문화 #해양지형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907 대왕암공원 052-209-3738

가 대왕암공원 특징

1. 대왕암공원 대왕암 전설

대왕암공원은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해양공원으로 1,500여 그루의 해송, 붉은 빛의 기암괴석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대왕암공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육지와 대왕암을 연결한 대왕교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대왕암공원은 동해안의 일출명소이자, 옛 선비들도 해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울산 동쪽 바다 위에 호젓이 솟아있는 거대한 암석에는 천년 전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극한 염원이 서려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생전 유언대로 동해안의 대왕석에 묻혔고 용으로 승화해 동해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그 뜻을 왕비도 이어받아 세상을 떠난 뒤 왕비의 넋도 울산을 향해 날아갔고, 동해의 한 거대한 암석 밑으로 잠겨 나라를 지키는 용신이 되었다. 후에 사람들은 그 암석을 대왕바위(대왕암)이라 불렀고, 용이 잠겼다는 바위 밑에는 해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2. 기암괴석과 암석해안

해안가에 다다르면 대왕암을 비롯한 수많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바닷가의 기암괴석이 형성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지가 해안까지 연결된 암석해안에서 나타난다. 파도에 의해 암석의 연약한 부분이 침식되면서 해식동굴이 만들어지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파도의 영향을 받으면 동굴이 무너져 절벽이 후퇴한다. 암석 중 단단한 부분이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경우, 작은 바위섬이나 기둥(시스택)으로 남아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형(해식애)은 동해안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황해안에는 구릉이 해안과 만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대왕암공원의 기암괴석과 암석해안 역시 다양한 침식 작용들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대왕암공원처럼 해식애 지형이 잘 발달한 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주로 관광지로 활용된다.

▼수많은 암석들이 형성되어 있는 해안





▲용굴 설명 표지판



▲대왕암쪽으로 이어진 용굴의 모습

3. 용굴의 구조

용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해식동굴로 '덩덕구디'라고도 불렸다. 옛날 청룡 한 마리가 이 굴에 살면서 사람들이 오가는 뱃길을 어지럽히자 동해 용왕이 신통력을 부려 굴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을 넣어 막아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대왕암공원의 해안가 둘레길에서 용굴을 찾을 수 있는데, 대왕암 연결다리가 있는 부근까지 이어져 있다.

나 대왕암공원 생태

1. 해송군락

공원 입구에서 대왕암까지 걸어가다 보면 약 1만 5,000그루의 해송군락을 만나게 된다.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해송이 빼곡한 숲을 거닐다 보면 나무그늘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더위가 살포시 식는다. 해송의 학술적 명칭은 '곰솔'이다. 지방에 따라 '해송' 또는 '흑송'이라 불린다. 소나무과의 상록수로 키가 20m 정도 매우 곧고 크게 자란다. 특히 바닷가 숲속이나 내륙 낮은 지대에서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 해송은 해풍에 강해 방조림이나 해안 사방에 주요 수종으로 이용하고, 조경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 해안이나 간척지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다.

울산 전 지역에 분포하는 해송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바닷가에 널리 자생하고 생명력이 강하며, 사철 내내 푸르다는 점이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고 하여 2004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의 구목(區木)으로 지정되었다.



▲해송군락과 산책길



해송 사이로 피어난 라벤더꽃 ▶

2. 송림길

해송군락 사이로 이어진 산책길은 대왕암공원의 별미 같은 공간이다. 우거진 송림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비밀의 숲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하늘을 가득 메운 빽빽한 초록 잎을 뚫고 햇빛이 내려오는 광경이 숲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계절마다 나무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두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송림길은 대왕암공원 초입부터 울기등대까지 이어지고, 약 40분 가량 소요된다.

3. 사계절길

공원 내 사계절길이라 불리는 짧은 길은 봄날에 가장 빛난다. 대왕암공원 중앙통로를 따라 양 옆으로 늘어선 수십 그루의 왕벚꽃나무들이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봄의 여왕인 벚꽃을 즐기기 아주 좋은 낭만적인 코스다. 소요시간은 약 15분으로 짧지만 강렬하게 봄을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이다.

다 대왕암 주변의 해양문화자원

1. 솔바람길 (둘레길)

대왕암에서 슬도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솔바람길 코스'에서는 푸른 바다와 함께 시원한 솔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다. 해송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섬과 기암괴석에 깃든 전설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총 4.4km로 2시간이 소요되는데, 가보고 싶은 구간을 정해 산책하듯 거닐어 보는 것도 좋다.

솔바람길 (4.4km/2시간 소요)

바깥 막구지기 → 민섬 → 수루방 → 용굴 → 부부송 → 넙디기 → 할미바위(남근암) → 탕건암 → 고이 → 사근방 → 다릿돌 → 용등 → 용추암 → 용추수로 → 복사미 → 용디이목 → 샛구직 → 과개안(너븐개) → 고동섬 → 중점 · 노애개안 → 배미돌 → 슬도



대왕암 산책로 표지판과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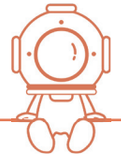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2. 울기등대



▲현재 운영 중인 울기등대

등대는 해상교통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상의 안전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안이나 섬에 설치된다. 굴뚝 모양의 구조에 등롱을 얹고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상, 음향, 전파의 수단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울기등대 구 등탑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등대로 1906년 처음 불을 밝힌 후 지금까지 바닷길을 밝혀주고 있다. 등대 부근에 다다르면 2개의 등대를 만나게 되는데 작은 등대는 1987년 12월 12일까지 약 80년간 사용됐던 울기등대 구 등탑이고, 큰 등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기등대 신 등탑이다. 울기등대 구 등탑은 구한말 시대의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어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2004년 9월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어린이테마파크(대왕별아이누리)



대왕암공원 바로 옆에 자리한 어린이 테마파크인 대왕별 아이누리는 모래, 흙, 언덕, 나무 등 자연 소재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다. 놀이시설이 야외와 실내에 모두 마련되어 있고, 첨단기술인 AR · VR 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00 어린이테마파크(대왕별아이누리)
개관시간 화요일~일요일 10~18시, 단 7 ~ 8월은 19:00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52-232-0300

#대왕암공원캠핑장



대왕암과 인접한 해변가에 현대식으로 조성한 오토캠핑장으로 오토캠핑 36면, 캐라반 17면 등 총 53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이 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00(일산동) 대왕암공원 캠핑장
입실 및 퇴실 당일 14:00 입실, 다음날 11:00 퇴실
문의 052-209-4530

02 슬도 "구슬픈 거문고 가락이 들리는"

#해양문화 #해양예술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5-3

가 울산 동구 소리 제9경, 슬도명파

1. 슬도

동구의 소리 9경 중 아홉 번째 소리는 방어진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섬, 슬도에서 들린다. 파도가 밀려올 때 바위에서 나는 구슬픈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소리 9경에 뽑혔다. 소리의 비밀은 섬 바위에 난 촘촘한 구멍 때문이다. 이 구멍은 돌맛조개가 서식하면서 만든 작품으로 수많은 세월에 걸쳐 구멍이 생성되었다.



▲슬도 정상에 서있는 등대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

슬도는 현재 해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성끝마을에서 슬도까지 파도를 제어하는 둑, 파제제가 260m가량 놓아져 있어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둑 위에는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 조형물이 서 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슬도 정상에 위치한 슬도등대는 1958년, 섬 주변의 수심이 낮고 작은 암초들이 산재하고 있어 슬도의 위치를 알리고, 방어진 항만 인지표지로 설치되었다.

2. 울산 동구 소리 9경

동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리와 그 소리가 울리는 장소를 선정한 '소리 9경'은 보는 관광에서 듣는 관광으로 처음 발전시킨 사례다. 동구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와, 현대 문명의 소리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다.

제1경은 동축사의 새벽종소리로, 마골산에 위치한 울산 고찰에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방어진까지 퍼진다.

제2경은 마골산 숲 사이로 흐르는 바람소리로, 산 중턱에 서면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사방에서 들려온다.

제3경은 옥류천 계곡 물 소리로 마골산과 쇠평마을을 잇는 동대산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제4경과 제5경은 현대중공업 엔진소리와 신조선 출항 뱃고동소리다. 1972년 울산 미포만에 자리 잡은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동구 주민들의 삶 그 자체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에는 동구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제6경은 울기등대의 무산소리로, 100년이 넘게 방어진 앞바다를 비춰온 등대의 불빛과 해무를 뚫고 울려퍼지는 무산소리가 경이롭다.

제7경과 제8경은 대왕암공원 몽돌 물 흐르는 소리와 주전해변 몽돌 파도소리로, 매끄럽게 윤기 나는 검은 자갈이 깔린 해변으로 파도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돌이 구르는 소리가 신비하고 몽환적이다. 마지막 제9경은 슬도에서 나는 소리다. 슬도는 섬 전체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멍 사이로 드나드는 파도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구슬프게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 슬도 주변의 해양문화 체험공간

1. 소리체험관

슬도 입구에 자리한 소리체험관은 동구 '소리 9경'을 테마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테마문화공간이다. 보는 풍경에서 한 발 나아가 귀로 들으며 풍경을 감상해보자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어 소리 9경의 소리를 모두 체험해볼 수 있다.
1층에는 동구의 역사와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지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4D 영상관에서는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기 좋다. 2층의 AR · VR 체험존에서는 최신 기술로 더욱 생생하게 소리 9경과 동구의 역사와 관광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소리체험관 전경



▼방어진 및 소리9경 관련 전시관



▼VR 체험존



2. 해파랑길 8코스

울산 해안가를 걷다 보면 해파랑길이라는 표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750km의 걷기 여행길이다. 전체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울산은 5~9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슬도는 제 8코스에 속한다.

8코스 경로(12.4km)

염포산 입구 → 울산대교전망대 → 방어진항(슬도) → 대왕암공원 → 일산해변 입구

▼해파랑길 8, 9코스 안내표지판



함께 여행해보세요!

#빨간등대&무안등대

슬도 방파제 양쪽에 두 개의 등대가 서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에는 빨간등대가 오른쪽에는 흰색 무안등대가 선박의 이정표가 되어준다. 두 개의 등대로 슬도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기기 좋은 포토스팟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5-3



#성끝벽화마을

슬도와 방어진항 바로 뒤편의 작은 마을에는 토박이 해녀들과 어민들이 살고 있다. 집 담벼락과 가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다양한 고래 그림과 이야기가 있는 그림으로 마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히 관광해야 한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5-3



03 주전몽돌해변 "파도가 만든 몽돌의 소리"

#해양산업 #해양관광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주전해변 052-209-0111(주전어촌체험마을)

가 울산 12경, 주전몽돌해변

1. 울산 12경 소개

제1경은 태화강국가정원과 십리대숲이다. 울산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됐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난 태화강에 조성된 공원이다. 제2경은 해송림과 해안의 기암절벽, 전설이 깃든 대왕암과 울기등대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왕암공원이다. 제3경은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가지산 사계이다. 가지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수량이 많아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제4경은 간월재에서 남쪽 영축산 방향으로 펼쳐진 신불산 억새평원이다. 신불산 정상에 오르면 억새만이 가득한 장관이 펼쳐진다. 제5경은 간절곶 일출이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하다. 제6경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이다. 선사시대의 해양 문화(포경)를 보여주는 암각 그림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제7경은 자갈이 파도에 의해 깎여 동글동글해진 몽돌로 이루어진 강동해안과 주전몽돌해변이다. 제8경은 울산대공원으로 도심 속에 위치한 시민들의 휴식공원이다. 제9경은 남구 매암동과 동구 일산동을 잇는 길이 1,800m의 현수교인 울산대교다. 울산대교전망대에 오르면 울산대교와 어우러진 공업단지와 도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제10경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로 현재 포경은 하지 않지만 그 문화와 마을을 잘 보전해 놓은 곳으로 고래 관련 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제11경은 외고산 옹기마을로 전국 최대의 옹기마을이다. 전통적인 옹기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옹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제12경은 대운산 내원암계곡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웅덩이와 폭포를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몽돌해변 보호 안내판



▲검고 둥근 몽돌

2. 몽돌해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빈이 대다수지만,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이 드물게 존재한다. 자갈해변의 경우, 해안까지 밀려오는 파도의 에너지와 주변 육지를 구성하는 암석의 특성에 따라 자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형성된다. 울산의 강동해안과 주전몽돌해변이 대표적인 자갈해변으로 작고 둥근 검은색 몽돌로 이루어져 있다. 자갈 해안은 그 자체로 독특한 자연환경이고 자갈이 파도에 구르고 흐르는 소리가 더해져 관광지로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자갈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주전몽돌해변과 해양체험

1. 주전마을의 역사

200여 년을 이어온 주전어촌체험마을은 18세기부터 '주전'이란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주(朱)는 붉다 혹은 밝다는 뜻이고, 전(田)은 바다 혹은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밝은 바닷가 혹은 밝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주전어촌체험마을에는 주전동의 상마을, 중마을, 아랫마을, 변덕마을, 큰불마을 등 5개의 자연마을과 주전해변까지 속해 있으며, 예부터 마을 동쪽에는 해변이, 서쪽에는 산이 있어 농업과 어업을 함께 일구며 살아온 전통적인 반농반어촌이다.
주전마을은 지난 3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울산의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 이점을 살려 2013년 주전어촌체험마을로 조성되었다. 주전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와 생태학습장이 차례로 개관했고, 마지막으로 2016년 체험 준비동까지 완비됐다.

2.주전몽돌해변 특산품

주전어촌체험마을의 해녀들은 전복이나 해산물뿐만 아니라 미역도 채취해 왔다. 해변가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란 돌미역은 일반 미역에 비해 쫄깃하고 비린내가 적어 일품이다. 자연산 돌미역과 성게를 넣고 끓인 미역국은 바다향이 가득 담겨 있고,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자연산 전복 요리도 유명하다. 주전마을은 돌미역과 전복을 활용해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해녀체험 중인 아이들



▼해녀들과 기념촬영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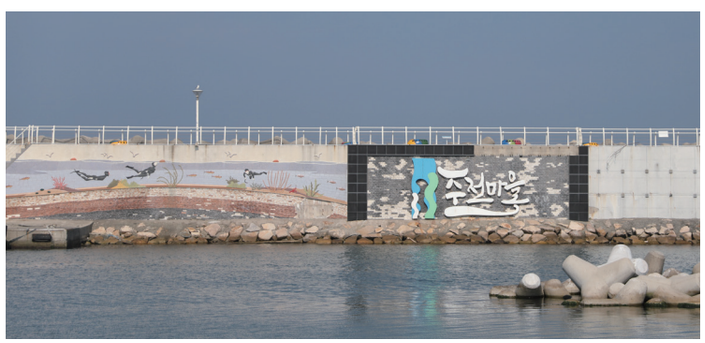


▲주전어촌체험마을 입구

3. 주전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가까운 해변과 잘 갖춰진 시설이 마련된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해녀체험, 낚시체험, 미역떡 · 우뭇가사리묵 체험, 해양생태장 맨손잡이 체험, 투명카누, 해녀밥상체험 등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체험이 많다.
가장 특별한 체험은 '해녀체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역으로 활동하는 마을 해녀들에게 물질을 배우고, 얕은 앞바다에서 전복과 해삼, 소라, 멍게 등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채취하며 청정 바닷속까지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해양생태장 맨손잡이 체험'은 무릎 정도 올라오는 수심으로 조성한 바다 체험장에서 소라와 고둥을 줍는 프로그램으로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모든 체험은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약이 필수다. 주전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는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편하게 쉬어가기 좋다.

▼방파제 벽에 설치된 주전마을 아트벽화



04 일산해수욕장 "반달 닮은 새하얀 백사장이 빛나는"

#해양문화 #해양예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가 울산의 해수욕장

1. 일산해수욕장 특징

울산에는 생각보다 해수욕장이 많지 않다. 반세기가 넘도록 산업도시로 발전해오면서 항만시설과 각종 산업 단지가 해안가에 조성되어 매립과 간척 등 인위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인공해안으로 직선화되었고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안이 드물어졌으나 몇몇의 해수욕장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의 3대 해수욕장으로는 정자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을 들 수 있다. 그 중 일산해수욕장은 동구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반달형의 고운 백사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백사장의 길이는 400m, 폭은 80m이며 면적은 32만㎡에 달해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온다. 백사장의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낮아 담수욕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전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곳곳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두어 일정 금액을 내면 사용할 수 있고, 캠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장비를 가져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일산해수욕장 안내센터▶



◀백사장에 심어진 해송들

2. 소나무 숲

일산해수욕장에는 백사장 가장자리를 따라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2019년에 여름에 심어진 나무들로, 백사장 1.2km 구간에 해송 262그루와 팽나무 41그루가 심겨졌다. 소나무 중에서도 해송은 해안 절벽이나 해풍이 부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해안가에 심기 좋은 나무다. 소나무 숲이 조성된 이유는 바닷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나무들이 자리를 잡는 중으로 2~3년 후에는 일산해수욕장의 푸르름을 한층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해양과 문화예술

1. 풍어제, 일산동별신굿

바다가 가깝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해안가를 따라 많은 어촌마을이 형성되었다.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온 어촌주민들에게 선박의 안전과 바닷속 물고기의 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풍어와 배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어촌마을에서는 매년 혹은 몇 해마다 풍어제를 지내왔다.

동해안 어촌에서는 이 풍어제를 별신굿 형태로 이어왔고, 울산 지역은 동구 일산동에서 열리는 별신굿이 대표적이다. 동해안 지역에서도 가장 유서 깊고 큰 굿 중에 하나로 200년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산동 별신굿은 매년 정월대보름과 음력 10월 초하루에 동제를 지내고, 10월의 동제는 격년으로 별신굿으로 진행한다. 별신굿은 유교식 제사 의식과 무당의 굿이 함께 이뤄지는 형식이다. 정월의 동제는 대보름밤에 일산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열리는 '달집태우기'를 진행해 일산동과 동구 지역 일대 주민들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일산동 별신굿의 역사와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2003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하였다.

▼나무데크로 조성된 막구지기 별빛광장



2. 막구지기 별빛광장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두 곳의 교차지점에 나무데크로 만든 광장이 마련되어 있다. 광장의 이름은 광장이 조성된 지점의 옛 지명인 막구지기를 활용해 '막구지기 별빛광장'으로 이름 붙여졌다.

은하수 조명, 난간 조명 등을 설치해 야간에 별빛이 내리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막구지기 별빛광장은 여름밤의 야외 콘서트 장소 또는 버스킹 장소로 활용되거나,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어준다.

2019년에는 막구지기 별빛광장 완공 기념으로 10월 마지막 날 일산별빛콘서트를 진행했다. 재즈밴드 및 어쿠스틱 공연으로 구성해 일산해수욕장을 재즈 선율이 가득한 가을밤으로 만들었다.

막구지기란?

막다른 곳 또는 남쪽의 의미인 '막'과 구석을 의미하는 방언 '구지기'가 합쳐진 단어로 남쪽 백사장 끝이라는 의미이다.

▼2019년 막구지기 별빛광장에서 진행한 콘서트 포스터



05 남진항 ~ 상진항 "바다를 더 친근하게"

#해양문화 #해양생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상진방파제

가 바닷가 마을의 새로운 변화

1. 친수공간

친수공간이란 시민들이 물과 연관되거나 가까이에 접근하여 관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장소를 말한다. 특히 해양분야에서의 친수공간은 도시나 마을에 위치한 개방적인 수변공간 혹은 공공시설이면서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라고 규정한다. 해양공원뿐만 아니라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을 운영하기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등 바다와 관련된 시설이 모두 친수공간에 속한다.



▲남진항에 정박된 어선



▲해안가 카페거리

2. 남진항~상진항

남진항은 피서기간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폰툰, 에어슬라이드, 시소, 물대포 등을 갖추고 있고 비치 파라솔과 간이 샤워시설, 발 씻는 곳, 남녀 탈의장, 화장실 등도 무료로 운영한다. 안전요원도 배치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3. 꽃리단길

화암추방파제부터 남진길까지 1km가량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꽃바위와 경리단길을 합친 '꽃리단길'이라고 불린다. 해변가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하고, 쉬어가기 좋은 문화거리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원래는 2015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이 지역을 '외국인특화거리'로 지정하였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남진길 일대가 경기 침체를 맞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대왕암공원과 슬도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꽃리단길이 점점 입소문을 탔고, 특히 꽃바위 부근에서는 슬도와 울기등대가 한눈에 들어와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나 동해안에서 가장 큰 화암추 등대

1. 등대

항구가 있는 울산의 바다에는 등대가 필수적이다. 등대는 빛이나 형상, 음파, 전파 등을 이용해 항만이나 해협 등 연안수역을 지나는 선박에게 위치와 해저지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해상교통표지판이다. 대부분의 등대는 굴뚝 모양의 구조에 등롱을 얹고 내부에는 등명기를 설치하여 빛을 발하도록 제작한다. 바다에 안개나 폭설 등으로 시야가 어두울 때는 무신호기를 사용한다. 300~500Hz의 저주파를 이용해 음향을 발사하여 바다 위의 선박에게 위치를 알린다. 무신호기는 간절곶 등대 옆에 전시되어 있어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등대는 크게 유인등대와 무인등대로 분류된다. 유인등대는 등대원이 등대에 상주하면서 각종 항로표지 및 기기의 관리와 운영을 직접 하는 곳이고, 무인등대는 자동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인 없이 운영 가능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처음 등대가 설치되었고 이후 1962년부터 체계적인 등대 시설을 구축해 나갔으며, 1998년경에는 등대시설이 완비되었다.

▼화암추 등대



무신호기란?

바다에 안개나 폭설로 시야가 불분명할 때 300~500Hz의 저주파를 쏘아 소리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장치.



▲간절곶 공원 무신호기

2. 화암추 등대

울산만 초입에 위치한 화암추 등대는 동양에서 가장 큰 등대이다. 1983년 울산항 앞 바다 속의 암초로 인해 해양사고가 잦아지자 울산 앞바다로 향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거북이 모양의 등대가 최초로 세워졌다. 이후 1994년 등대를 보완했고 현재 위치에 다시 건설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등대는 44m로 동아시아 최고 높이이고 18개국 30여 항로를 통해 세계로 연결된다.
등대 내부는 일반인도 관람 가능하다. 1층에는 항로표지 전시홍보관, 8층에는 전망대 라운지, 9층에는 디지털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대 주위에는 화암 네이처 파크가 펼쳐져 있다. 전시홍보관에서는 등대의 빛을 담당하는 등명기와 세계의 등대에 대해 알 수 있고, 8층 전망대에 오르면 울산의 바다와 현대중공업, 울산항의 전경이 펼쳐진다. 9층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진 체험시설, 해양재난 체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등명기 전시 섹션



▼해양재난 체험시설 내부



▼등대 전망대 내부



06 울산대교전망대 "울산의 역사를 한눈에"

#해양문화 #울산역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118-3 052-209-3345(울산대교전망대)

가 산업과 자연의 공존

1.울산대교전망대 야경

울산대교전망대에서는 2015년 5월 개통한 국내 최장이자 동양에서 3번째로 긴 단경간 현수교인 울산대교와 울산의 3대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단지 및 울산의 7대 명산을 둘러볼 수 있다. 동구 화정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는 63m, 해발 203m에 달한다. 1층에는 대교 홍보관, VR영상실 · 체험존, 기프트샵, 카페 · 매점이 있고, 2층은 야외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전망대 내부와 망원경▶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울산대교 야경▶

올라가면 원통형의 전망대 유리창을 통해 울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4층에 옥외전망대가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밤이 되면 전망대 외관에 조명이 켜지고, 전망대에서는 울산대교를 중심으로 동구의 불빛들을 마주하게 된다. 2019년 11월부터 전망대 외벽에 불빛을 쏘아 동구의 산업 및 관광자원을 테마로 한 영상 연출쇼가 펼쳐지고 있다. 우천 혹은 기상악화를 제외하고 매일 오후 07시 50분부터 40분간 상영된다.

나 울산의 역사

1.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울산 중구 서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조선시대 경상좌병영, 즉 경상도의 좌측 지역을 관할하며 육군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와 군사들이 주둔했던 성이었다. 경상도는 군사상 요지였기 때문에 1417년(태종 17년)부터 1894년(고종 31년)까지 유지되었고 478년간 존속했으며 세월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었다.



▲복원된 치성 1호



▲병영성 성곽 둘레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조선 후기 병영성의 모습은 성벽 둘레 약 1.2km, 높이는 약 3.7m이었고, 성벽에는 밖으로 돌출시킨 치성이 약 100m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 성벽 바깥으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에 못을 파서 둘러두었다고 한다.
현재 성의 완전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발굴조사 및 정비공사를 통해 서문지에서 북문지 방향으로 162m 구간의 성곽과 치성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시민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되었으며, 주변 주민들이 훌륭한 산책로로 이용하도록 탈바꿈하였다. 앞으로도 동문과 서문을 복원할 계획이다.

2.방어진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방어진은 과거 배가 드나들던 나루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세종 때 세 개의 포구가 개항하면서 이곳 염포는 왜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삼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이 난을 일으킨 삼포왜란 이후 왜인들은 물러났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인들이 방어진을 군사기지로 삼았다. 또한 방어진 일대는 조선시대에 국가가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방어진'이라는 이름은 포구 앞바다에서 방어가 많이 잡힌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광복 전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어항으로 발달했다. 현재 방어진항은 울산만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항구 주변은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3. 울주 언양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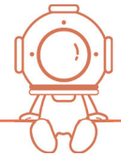
울주군에 위치한 언양고을은 삼국시대부터 경주, 울산, 밀양, 양산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전략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자연스레 사람이 모였고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양읍성이 축조되었다. 처음에는 흙으로 성을 쌓았으나 조선시대(1500년)에 현감 이담룡이 규모를 확장하고 돌로 다시 쌓았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읍성을 허물면서 사라져버렸으며, 현재는 성을 쌓았던 큰 돌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는 복원이 완료되어 직접 올라가 볼 수 있고 성문을 둥글게 감싸 안은 반원형의 옹성 위를 걸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누각 위에 오르면 신불산과 가지산이 보이고 성벽 아래로 어우러지는 낮은 주택들의 한적한 모습이 평화롭게 보인다. 읍성의 북문 근처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관련 영상 시청과 문화해설을 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

옹성이란?

옹성은 성문 앞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모양이 마치 항아리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성문을 공격하거나 부수는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함께 여행해보세요!

#VR체험관

울산대교 전망대 1층에 VR체험관이 신설됐다. 울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영상으로 활용하여 VR체험도 하고 4D영상도 볼 수 있다.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로 총 5회로 운영한다. 120cm 이하인 어린이들은 체험기구 탑승에 제한이 있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118-3
개관시간 매일 09:00~21:00(둘째, 넷째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문의 052-209-3345



07 우가어촌체험마을 "해녀들의 삶이 녹아있는"

#해양문화 #해양생활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096(당사동) 052-293-2009(우가어촌체험마을)

가 어촌체험마을

1. 우가마을의 역사

북구 당사동 가운데 우가산이 솟아 있고, 산 동쪽에 우가마을이 위치해있다. '우가'는 마을의 지형이 소가 누운 것 같이 생겨 부르게 된 지명으로 산의 이름도 마을에서 따왔다. 우가마을 앞바다는 돌미역 채취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어 해녀들이 물질을 하며 살아왔다. 우가항은 정박 어선이 적고, 마을 어장에 바다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맑은 것이 특징이다.

우가마을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됐다. '금실정'이라 불리는 소나무 두 그루가 마을의 메인 포토존이다. 소나무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금실정에는 결혼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던 부부가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 일출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일년이 되던 날 아이가 찾아왔고 그 후에 부부가 기도했던 언덕 위의 소나무 두 그루가 굽기 시작하더니 한 그루로 연결돼 동그란 모양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2. 체험활동

우가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우가항 바다가 가진 맑고 얕은 수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실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을 만큼 전복, 미역 등 각종 해산물이 많은 점을 이용한 스노쿨링 체험과 카약의 몸체를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다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카약 타기가 있다. 해안 수심이 무릎 아래로 유지하고 있는 맨손 잡기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산물을 딸 수 있다. 마을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해 신선한 해산물 구매도 가능하다.

우가어촌체험마을과 우가항 주위에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안내소,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고, 매년 7~10월 사이 수온에 따라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체험마을을 이용하고 싶다면 우가어촌계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투명카약타기 체험



08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로 곧게 뻗어나간"

#해양산업 #해양관광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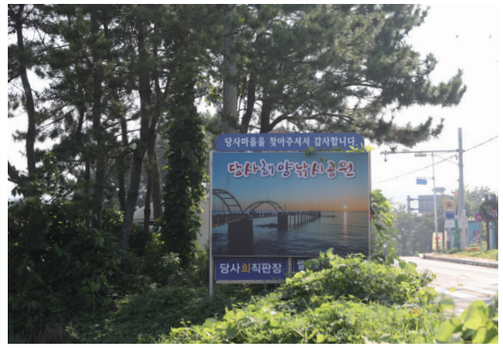
가 당사해양낚시공원

1.바다 위 다리

당사항에서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다를 향해 곧게 나아간 다리를 만날 수 있다. 2013년 7월 26일 개장한 '당사해양낚시공원'은 두 개의 아치 형태의 진입 구간 64m, 낚시대를 내려 낚시체험을 할 수 있는 다리와 해상전망대를 포함한 156m의 해상 다리이다.
두 개의 아치교 난간에는 저마다의 소원을 적은 조개껍질이 매달려있고, 낚시가 가능한 구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다리 난간에 조성된 사랑의 조개고리



▲당사해양낚시공원 표지판



▲다리 끝 지점에 위치한 넘섬으로 내려와 낚시를 하는 모습

다리 끝 지점에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섬인 넘섬과 연결된 계단이 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하기 좋다. 바다 날씨가 좋다면 이곳에서 낚시가 가능하지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공원 입구의 오른편에는 생태 관광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옥황상제로부터 벌을 받아 당사마을로 쫓겨난 뱀이 긴 수행 끝에 용으로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착안한 용 조형물이 중심에 서있고, 나무데크로 만든 전망대가 둘러져 있다. 전망대에 서면 바다로 뻗은 다리공원의 모습과 푸른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2. 낚시 체험

간단한 낚시 도구만 있다면 당사해양낚시공원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공원 관광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오전 8시~오후10시, 동절기(11월~3월)는 오전 9시~오후 9시로 낚시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다.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수협 당사어촌계에 사전 연락을 취하면 오전 7시부터 낚시체험이 가능하다.

09 정자항 "영원을 약속하는 연인들의 항구"

#해양문화 #해양생활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가 정자항의 역사

1. 만선을 기원하는 항구

정자항은 북구 정자항에 위치한 항으로 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동동 8개 포구 가운데 중심 어항이며 1971년 12월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정자(停子)'라는 지명은 마을에 포구나무 정자가 있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정자항은 북방파제, 남방파제 및 파제제가 축조되어 있어 어선들이 드나들기 쉽도록 정비되었다.

이곳의 어민들은 주로 참가자미나 대게를 어획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특히 전국에 유통되는 참가자미의 70%가 정자항에서 잡힐 만큼 수확량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참가자미는 고소하고 찰진 식감과 더불어 비린 맛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는 생선 중 하나다. 1년 내내 참가자미가 잡히지만 봄철이 가장 제철이고, 겨울철에는 울산의 찬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을 받으며 잘 말린 참가자미가 별미다.
정자항 한쪽에 자리한 정자활어직판장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한다. 2019년에 신축 건물을 완공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1층 활어직판장에서 생선을 구입해서 2층 초장집에서 식사하면 된다.

2. 울산 아리랑의 고향

정자항은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아리랑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곳이다. 전통 아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99년 발표된 가수 오은정의 가요<울산아리랑>이다.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는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에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를 빗대어 표현해 울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무룡산, 태화강변, 문수산, 정자 바닷가 4곳이 언급되는데 정자 바닷가가 바로 정자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자항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나 정자항의 해양문화자원

1. 귀신고래 등대

정자항의 상징적인 조형물이자 어선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귀신고래 등대는 2010년 건립되었다. 이곳 정자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울산 부근 동해안(울산귀신고래 회유해면)은 고래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 속한다. 이 경로는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정자항 앞바다도 보호구역에 속하고 있어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등대가 탄생했다. 귀신고래의 모형을 한 거대한 등대는 정자항 양쪽 방파제 끝에 위치한다. 바다를 바라보고 섰을 때 왼편 북방파제에는 빨간색 귀신고래등대가, 오른편 남방파제에는 하얀색 귀신고래등대가 서 있다. 고래의 실제 피부색은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띄며 흰색의 상처 모양이 있고 표면에는 따개비나 굴, 껍데기 등이 붙어있다. 그러나 등대의 역할을 하는 고래 조형물로 재탄생 되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 빨간색(우현표지)과 흰색(좌현표지)을 입게 되었다. 두 개의 귀신고래등대는 암수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붉은 등대는 마주보기 위해 방향을 돌리고 서있어 연인들이 사랑을 다짐하는 장소로 많이 찾는다.

▼흰색귀신고래등대



▼빨간색귀신고래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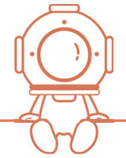


2. 미역바위

미역바위는 정자항 방파제 남쪽 작은 곳에 위치한 판지마을 앞바다 속에 있는 돌이다. 한자어로 '곽암', '양반돌' 혹은 '박윤웅돌'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1937년 간행된『홍려승람』에 미역바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왕건이 918년 고려를 건국할 당시 공을 세운 박윤웅에게 현재의 농소, 강동지역을 하사했고, 강동의 미역바위에서 생산되는 미역을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그의 후손에게 제공해 왔다고 한다.



〈마음씨 착한 부부와 고래의 은혜〉 스토리텔링▶



함께 여행해보세요!

#정자방파제

정자방파제는 가지가 4개인 테트라포드 콘트리트를 쌓아 축조한 방파제다. 방파제 초입부터 중간 지점은 고기들의 산란장 및 치어들의 피신처가 되고, 중간부터 등대 끝까지는 수심이 깊어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훌륭한 낚시터가 되어준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정자항에 조성된 아트스트리트는 다양한 조형물과 스토리텔링 조형물들이 방파제길을 따라 펼쳐진다. 바로 옆 바닷가에 예쁜 바람개비도 설치되어 있고, 나무데크로 만든 작은 공연장도 마련되어 있다. '마음씨 착한 부부와 고래의 은혜' 라는 스토리를 생각하며 산책해보는 것도 좋겠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10 강동화암주상절리 "자연이 빚어낸 기묘한 예술품"

#해양과학 #해양지형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강동해변

가 주상절리의 지질적 의미

1. 주상절리 생성 과정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릴 때 급격히 식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며 생겨난다. 용암은 표면부터 식을 때 균열이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되고 점점 깊은 곳까지 식어가면서 큰 기둥을 만든다.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주상절리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

용암이 굳으며 쪼개지는 방향에 따라서 판상절리와 주상절리로 나뉜다.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하고, 판상절리는 지표면이 지속적인 침식작용을 받거나 지각변동으로 윗부분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면 지표면과 평행한 판상절리가 나타난다. 주상절리는 육각형 모양의 단면이 형성될 때 다른 모양의 각기둥이 형성될 때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육각형 모양의 주상절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목재더미 모양의 주상절리

2. 강동 화암 주상절리

강동 화암 주상절리는 북구 산하동에 위치한 화암마을 앞 강동해안에서 볼 수 있다. 이곳의 해변 일대에 서 있는 주상절리는 신생대 제 3기(약 2,000만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 용암이 냉각하면서 열수축 작용으로 생성된 냉각절리이다.

강동화암주상절리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목재더미 모양을 하고 있다. 동해안 주상절리 가운데 용암 주상절리로는 가장 오래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그 모양이 다양한 각도로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주상절리와 어우러진 주변 경관도 훌륭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주상절리 보호활동

주상절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보호 활동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 북구 역시 2010년경 강동화암주상절리 일대에 정자와 탁자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과 친환경 화장실, 가로등 등을 설치했다. 이곳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야영이 금지되어 있고, 취사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울산지역
해양문화 탐방장소

남구 · 울주군

동구 · 북구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IC 장안

IC 온양

IC 청량

IC 범서

JC 울산

IC 문수

JC 울산

간절곶

송정낚시터

솔개해나하변

용곡산

진하해수욕장

목도 상록수림

대덕산

처용암

귀신고래회유하변

남진항~상진항

솔도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울산대교전망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학성산

울산항

봉대산

주전하변

당사하항낚시공원

우가어촌체험마을

무룡산

우가산

동학산

정자항

강동화암주상절리

안봉산

화장산

임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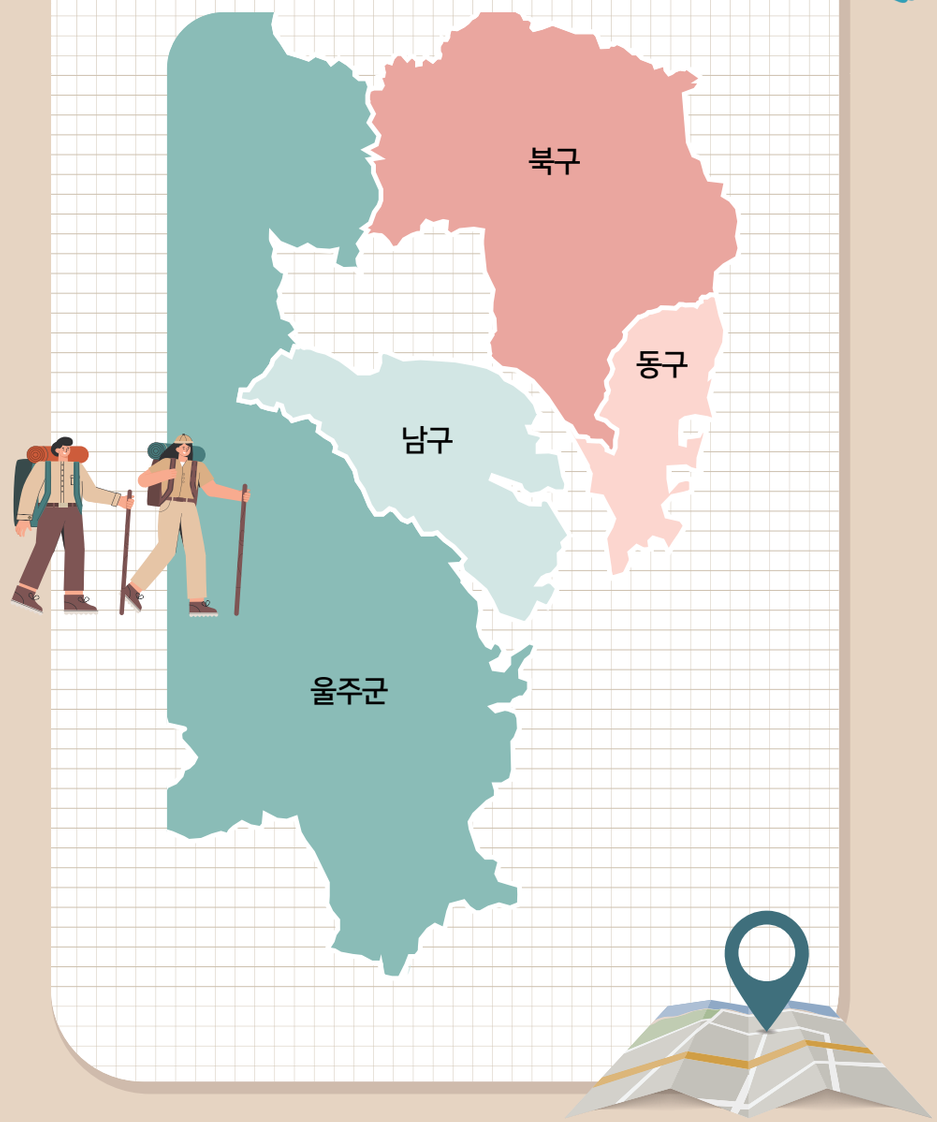
황방산

태화강

금비알산

울산지역

해양문화 탐방장소



남구 · 울주군 지역 탐방 장소



· **울산항**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울산항
052-228-5351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장생포고래박물관
052-256-6301~2

· **처용암**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68-1
052-229-6350

·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울산광역시 동해안 일원

· **성암동 패총**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451-4
052-229-6350

· **간절곶**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052-204-1000

· **진하해수욕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토지구 획정리지구내 9B

· **목도 상록수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 **솔개&나사해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솔개해변/나사해변

· **송정낚시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39-8
010-4704-8805

동구 · 북구 지역 탐방 장소



· **대왕암공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907 대왕암공원
052-209-3738

· **슬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5-3

· **주전해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주전해변
052-209-0111

· **일산해수욕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 **남진항~상진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상진방파제

· **울산대교전망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118-3
052-209-3345

· **우가어촌체험마을**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096(당사동)
052-293-2009

· **당사해양낚시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58
010-3884-3635

· **정자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 **강동화암주상절리**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강동해변

사진제공

울산광역시청
울산항만공사
화암추등대관리소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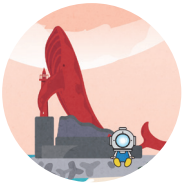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XI
울산 지역 해양문화 체험 자원 지도

초판 인쇄 | 2020년 12월 4일
초판 발행 | 2020년 12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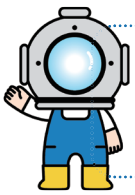
펴낸곳 | 한국해양재단, 울산광역시청
펴낸이 | 강무현
주소 | 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인의동, 인의빌딩)
전화 | 02-741-5278
팩스 | 02-3673-3312
홈페이지 | www.koreaoeanfoundation.or.kr
편집인 | 서혜경, 김경주, 강민영
디자인 | 조은희
편집 · 출판 | 수퍼씨

〈비매품〉
ISBN 979-11-90575-06-5(13980)

이 책을 통해 바다를 관찰하고 해양문화를 경험해보아요.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해보아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www.koreaoceanfoundation.or.kr
해양교육포털 홈페이지 www.ilovesea.or.kr



HOGI 호기

호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해양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해양재단이 개발한 캐릭터 입니다.